

# “파티룸 감염, 들어봤나? 영업제한 부당”

### “감염사례 한번도 없었는데 영업제한하나”

### “문제 없는 파티룸만...모텔들, 밤샘영업도”

### “밤 10시 제한 해제” “정부 손실보상” 요구

“집합금지 업종 중 감염 사례가 없었던 곳은 파티룸이 유일하는데...에어비엔나 모델은 밤샘영업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나요.”

20일 공간대여협회 등에 따르면 이 협회 조지현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이렇게 호소했다. 특정 소수가 이용하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적는데 비해 규제는 그 이상으로 심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 시간을 제한한 후 파티룸으로의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며 지난달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달부터는 오후 10시 영업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파티룸 운영자들은 이 같은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규제를 받고 있지만 파티룸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된 소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하루에 1~2팀이 서로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기에 영업시간 제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파티룸은 저녁시간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밤 10시 제한 때문에 1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이 이야기하는 실정이다. 또 업자들은 업장 넓이에 따른 인원 제한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 의원에게 “이렇게 넓은 공간에 최대 4명만 들어올 수 있다”며 “밤 하나에 임대료가 200만원 수준인데 넓이에 비례한 인원제한이 됐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에어비엔나나 모텔, 호텔 등에 서는 여전히 밤샘모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탈감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파티룸만 되려 영업제한을 받고 있다”며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호텔이나 모텔 등에서 밤 10시 이후 호객행위가 장난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데도 과도한 집합금지를 해 최대 성수기인 연말연초 장사를 모두 망쳤다”며 “일괄적인 300만원이 아닌 운영 공간 수와 면적에 따른 임대료 등 손실

보상을 요구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다음주 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33명으로 최근 일주일 총 3113명이 감염돼 하루 평균 44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500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선욱기자

## 봉사단체 여직원 강제추행 70대 목사, 2심도 징유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징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 5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지역 모 사회봉사단체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 B씨에게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신고 당시 경찰 수사 보고서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진 않았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A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부끄러움에 앞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언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와 다른 증인들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자신을 곤란하게 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피해자를 탓하고만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편의점 위장 취업하자마자 절도 행각 20대 입건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편의점에 취업하자마자 상품권 등을 훔치고 교통카드를 결제금을 지불 없이 충전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A(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광주 북구 모 편의점에서 140여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온라인 선불 결제권 등을 훔치고 교통카드에 50만 원을 무단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당일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벌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전날 자택 인근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인 점 등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출소 하자마자 또 112전화 욕설·폭언 50대 구속

목포경찰서는 19일 112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112에 1782회에 걸쳐 전화해 “인간 같지도 않은 xx야,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동일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출소 직후부터 또 다시 112에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혐의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112신고 녹취파일과 피해 경찰관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 여수 야산서 실화 추정 산불...59분만에 꺼져

19일 오전 11시 16분께 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한 야산에서 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에 의해 59분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127명을 투입해 1차 진화를 마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주민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설명절에 모인 여수 일가족·지인 6명 집단감염... ‘파장 확산’

### 본가 방문한 완주 32번이 13개월 영아 등 6명에 전파 추정

### 여수산단 대기업·대형 병원 등 연관되면서 시민 불안 가중



전남 여수에서 설 명절 가족 간 모임이 한 일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족 가운데 13개월 영아와 할머니, 할아버지,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 근무 사무직원이 포함돼 광범위한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1일 오전 ‘코로나19비대면 영상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기간 가족을 찾아온 완주 32번(전북 1112번) 확진자에 의해 여수시민인 영아를 포함한 일가족 5명과 지인 1명이 확진(여수 50번·여수 55번·전남 821·전남 826번)돼 강진의료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에 따르면 완주 32번 확진자는 설인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여수를 방문했으며 19일 완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완주보건소의 통보를 받은 여수시 보건소는 완주 32번 환자의 동선을 추적했으며, 여수의 가족 가운데 영아를 포함해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5명이 집단감염됐다.

이 중에는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 사무직원도 포함됐으나, 생산라인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공장가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55번 확진자는 여수 53번 확진자의 지인으로 13일부터 19일까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방역당국은 완주 32번 확진자가 11일부터 15일까지 방문한 11곳에 대해 역학조사 및 방역 수속을 마치고 임시 폐쇄했다. 또 동선의 접촉자 52명을 검사해 모두 음성 판정받았다. 이와 함께 여수 50번~54번 확진자와 접촉한 32명도 검사해 모두 음

성 판정받았다.

여수 50번과 밀접접촉한 6명은 자가격리조치 했으며 방문지 21곳은 소독 및 폐쇄조치 했다. 봉산동의 한 음식점은 접촉자 파악이 마무리되지 않아 상호를 공개하고 방문자들의 자발적 산별 검사를 촉구했다.

여수 53번 확진자와 접촉한 55번 확진자는 조사 예정인 가족 2명 외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수산단 내 대기업에 재직하는 여수 52번 확진자의 접촉자 73명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45명이 음성 판정받았고, 2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 직·간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 40명도 검사하고 단순접촉은 재택근무하고 25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와 함께 영아가 아파 방문한 병원의 관계자 6명에 대해 검사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받았다.

여수시는 설 집단 가족 감염 등 21일 오전까지 해외입국자 18명 포함해 누적 55명이 확진됐다. 기획재정부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